브라운관용 형광체 자급“ 임박"

고려아연 300톤 생산 예정 … 램프용 형광체도 각광 전망

머지않아 칼라TV 브라운관용 형광체 수요 전량이 국내에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칼라TV 브라운관용 형광체는 브라운관을 생산하는 삼성전관 · 금성사 · 오리온전기에서 수요되고 있는데 삼성전관은 연 3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 자체 충당하고있으며 럭키는 연 200톤 가량을 금성에 공급하고 있다. 오리온전기는 일본 도시바로부터 연간 100톤 정도를 수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칼라TV 브라운관용 형광체는 오리온전기 수입물량 이외에 기술 축적이 부족한 일부 특수 그레이드를 수입해 오고 있었으나, 올 상반기중 고려아연에서 브라운관용 형광체 300톤, 램프용 형광체 100톤 규모의 생산공장을 완공하여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수요량 전부를 국내에서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관용 형광체 시장은 브라운관의 수요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있는 특성으로 인해 컬러TV의 경기에 따른 수요의 유동성이 크나 지금까지 소수의 수요기업과 소수의 공급기업에 의해 유통되는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고려아연에서 생산을 시작할 경우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오리온전기의 수요량에 대한 공급을 둘러싼 생산기업간의 관심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램프용 형광체분야는 중소 규모의 조명기업들에서 전량 수입해서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삼성전관에서 3파장 형광등에 사용되는 형광체의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에서도 생산될 예정으로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문은 조명산업이 발달해 있는 유럽에서 램프용 형광체 기술이 앞서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광고 네온싸인 · 인테리어 장식용 등 조명분야의 발달과 더불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형광체 산업은 실존하는 선진기술과의 격차 극복과 HDTV 등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전자제품의 빠른 라이프 싸이클에 행보를 맞추기 위한 기술개발에 국내 기업과 관련단체간의 공동 보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4/25>